

책임있는 광물 구매 정책

대덕전자는 "아프리카 10개국(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을 포함한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이하 "분쟁지역 등")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책임 있는 광물 사용 관리 체계 구축과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하여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의 환경과 인권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대덕전자는 "분쟁지역 등"에서 불법적으로 채굴되는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C(코발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전자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고객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쟁광물 미사용' 체제 구축을 위해 OECD 실사지침 등을 기반으로 분쟁광물에 대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도 분쟁광물 관리를 위한 협력사 행동규범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책임 있는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인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을 취득한 제련소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대덕전자는 기존 분쟁광물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채굴되어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등의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운모, 구리, 흑연, 니켈, 리튬 등)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협력사에도 책임 있는 광물 구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덕전자는 글로벌 광물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